

특특뉴스

일본 맥주 작년 수입액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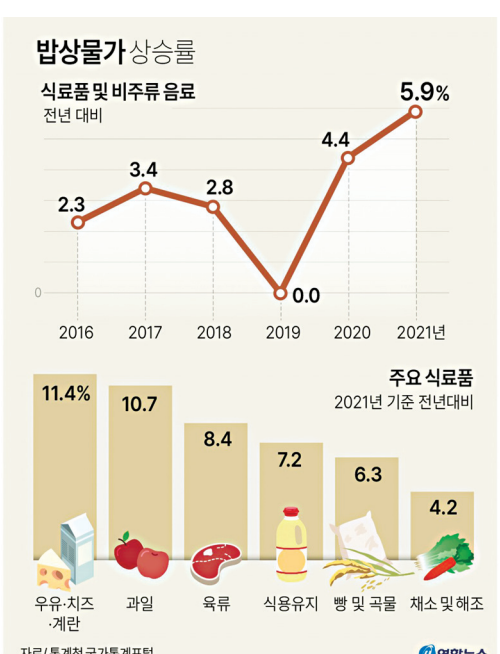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이 소폭 늘었지만 불매 운동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90%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687만5,000달러로 전년보다 21.3%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75만6,000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2020년 566만8,000달러로 또그라들었다.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91.2% 감소한 수치다. 3년전 수입액의 9%에도 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등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픽 경제



작년 밥상물가 10년 만에 최고

지난해 밥상물가가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출 목적별 12개 대분류로 나눠 보면 교통 (6.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5.9%), 음식 및 숙박 (2.7%)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 동행”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올해 광주전남 신협 목표
자산 15조·당기순익 600억

도시-농촌·대-소형조합
양극화 해소 노력할 것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올해도 지역사회에서 서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동행하겠습니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 광주전남신협은 자산 15조 원, 당기순이익 600억원을 달성해 자

립경영·지속가능·상생발전이라는 3대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신협은 자산 13조원과 당기순이익 560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예대율도 85.5%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해피해 복구 지원, 장학금 전달, 운세상나눔캠페인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의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슬로건을 ‘따로 또 같이’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협운동의 3대 정신인 자립, 자조, 협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신협은 각각 개별 조합으로 존재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도 코로나 리스크와 가계대출 축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본연 정신으로 돌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도시와 농촌, 대형-소형조합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광주전남 88개 조합 가

운데 자산 900억원 미만 농소형조합은 광주 9개, 전남 22개다. 도시와 농촌, 소형조합과 대형조합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양극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조합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본부는 전국 최초로 19개 신협이 기부금을 모아, 고충 포두신협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의미도 빛났지만, 농촌 소재의 열악한 조합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이러한 농소형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업과 업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신협의 자립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금융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협은 모바일뱅킹 앱 개편을 통한 온뱅크와 손바닥으로 이용하는 바이오인증 핸드폰을 출시해 비대면 금융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선대와 산학협력을 확대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조합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해 광주전남과 상생 발전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과 이익 배분을 통해 상생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기아는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 차(SUV) ‘디 올 뉴 기아 니로’ (신형 니로)를 25일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형 니로는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총 1만7,600대가 사전계약 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트립별 선택 비율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레스티지(40.6%), 트렌디(14.3%)가 그 뒤를 이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안전하차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 차급을 뛰어넘는 사양이 대거 기본으로 적용됐다.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이 51.3%로 가장 많이 선택받았고, 내장 컬러로는 ‘차콜’을 선택한 사전계약 고객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신형 니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스마트스 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32kW 모터를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을 발휘한다. 연비는 국내 SUV 가운데 최고 복합연비인 20.8km/L를 구현했다.

기아는 국내에서 신형 니로를 연간 2만5,000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에 이어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신형 니로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1F_CAFE & LOUNGE

Fun it, us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